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옛그제 베를린 남동부의 쇼네바이데를 찾았다. 어김없이 초겨울의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나치 강제노동 기록센터는 방문객들을 차분하게 맞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치 치하 강제노동 및 2000년 이후에 시작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실태에 관한 상설 전시, 그리고 2차대전 말기에 이루어진 이탈리아 주민들에 대한 강제노동에 관한 특별 전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과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 전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 간 조소미야 총리 문제와 대비되면서 나에게 착각함을 더해 주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기록센터는 베를린에 있었던 3000개의 강제노동 수용소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 부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베를린의 쇼네바이데에서

로, 근래에 만들어진 '테러의 지형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나치의 강제노동 수용소를 말할 때면 항상 아우슈비츠나 작센하우젠, 다카우, 부헨발트와 같은 유명한 절멸 수용소들을 떠올리지만, 나치 독일이 만들었던 강제노동 수용소는 이런 극단적인 유형뿐 아니라 훨씬 더 일상적이고 많았던 강제노동 수용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이 기록센터는 일반 주택가에 자리 잡고 단층짜리 건물들로 구성되었는데, 일부 건물에는 이탈리아의 젊은 군속들이 연행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1944년 초에 이렇게 강제 연행되어 강제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베를린에만 42만 명이나 되었다. 2006년 건물들이 수리되어 전시관 및 기록센터로 개관하였다.

1945년 5월,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나치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었던 2600만 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절멸 수용소 생존자를 제외하고 약 1137만 명이었고, 소련에만 355만 명이 생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독일로 강제로 연행되어 왔으며, 독일의 각종 공장에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필요했던 생활필수품들을 만들고 있었다. 물론 임시 주거

시설에서 열악한 생활을 했다. 나치하에서 자행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서독의 배상은 이스라엘에 30억 마르크, 유대인회의체에 4억 5천만 마르크를 지불한 것이 시초였다. 나치 피해의 문제는 일찍부터 가장 끈졌던 홀로코스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문제나 나치 군대에 관한 문제는 금기 또는 침묵하는 문제로 남아 있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53년 런던 합의에서 제기되었으나 오랫동안 법적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었다.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 보상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 2+4의 방식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 기업들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다시 부상하였다. BMW에서 강제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배상을 요구하자 독일 정부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미국에서 전개된 독일의 전범기업 보이머 운동이 결정적이었다. 1998년 독일의 정당들이 강제노동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00년에 법률을 제정하였다. 독일 연방정부가 50%, 기업들

이 50%를 출연하여 총 100억 마르크의 기금을 마련하고 기억책임미래재단을 설립하였다.

2001년 5월부터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개별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2007년까지 총 98개국의 피해자, 166만 명 이상이 보상을 받았다. 러시아에서 85만 명, 폴란드에서 48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보상 과정은 복잡했다. A범주는 절멸 수용소나 감옥이나 게토의 노동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에겐 7669유로, 후자에게는 3068유로에서 7669유로까지 보상되었다. B범주는 강제노동 수용소나 각 기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사람들로 2556유로씩 보상되었고, 농업 부문에서 강제노동을 한 사람들에겐 536유로에서 2200유로까지 지급하였다. 물론 많은 희생자들에게 그 보상은 낮은 것이었고 보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유럽 가난한 나라들의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으로 간주되었다.

쇼네바이데에서 다시 한 번, 과거를 직시하고 또 과거와 화해하는 방식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를린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청춘특독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기라니



조서희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1학년

'프로듀스 101'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프로듀스 101'에 이어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까지 3개의 후속 작을 연달아 방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가장 최근에 방영했던 '프로듀스 X 101'이 끝난 지 4개월여가 지난 지금, 메인 PD와 담당 팀장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국민, 팬들에 의해 바로 제기된 '투표 조작' 의혹 때문이다.

프로듀스 101은 시청자 투표로 우승자가 정해지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달랐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승자가 아닌 연습생 프로그램을 마친 뒤 방송 데

뷔 멤버를 정한다.

출연자인 101명의 연습생은 시청자 투표로 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최종 순위 1~11위가 데뷔 멤버가 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시청자는 방송과 미방영분을 보며 정해진 기간 동안 데뷔했으면 하는 연습생에게 투표하고, 연습생들은 시청자 투표로만 데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연습생의 데뷔를 위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과 연습생을 홍보했다. 즉 시청자가 맘에 드는 후보를 가수로 데뷔시키는 프로듀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 광고부터 카페 컵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자신의 연습생에게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프로듀스 101의 대표 문구인 '당신의 연습생에게 투표하세요'는 이렇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던 중, 투표 조작 의혹이 나왔다. 엠넷에서 방영한 또 다른 아이돌 데뷔 프

로그램인 '아이돌 학교'에서다. 최종 순위가 인지도 및 팬 수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증일 뿐, 정확한 물증이 없던 조작 의혹은 그렇게 일부만 아는 의혹이 되었다.

정확한 증거가 나온 건 2년 후, '프로듀스 X 101'에서였다. 한 시청자는 투표 조작이 의심되며,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종 득표수를 정리한 표를 올렸다. 표에는 순위별 득표수 차이가 적혀 있었는데, 전 부 7494.442라는 동일한 값이었다.

이를 올린 시청자는 모든 득표수 차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비판하며, 투표가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심은 불증이 없어 불행한 아이돌 학교와 다르게 뉴스와 기사로 일파만파 퍼졌다.

그날 프로그램인 SBS 'PD수첩'에서도 프로듀스 101의 투표 조작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각 출연자별 출연초수를 분석해 특정 소수 출연자에게만 분량이 몰려 있었으며, 제작진 측에서 "분량을 일부러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듀스 101의 투표 조작은 단순한

투표 조작이 아니다. 개인 연습생 혹은 신생 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은 방송에서 단 1초의 분량도 얻지 못한 채 1~2차 탈락을 맞이하였다. 그에 반해 중·대형 기획사들은 로비를 통해 소속 연습생들의 분량을 챙겼다.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니 만큼 시청자들은 더 많이 보이는 연습생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제작진을 또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습생들의 간절함이었다. 시청자들은 데뷔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연습생들의 간절함을 봤다. 그 간절함에 끌려 시청자들은 열정적으로 투표한 것이었다.

시청자가 정하는 데뷔 멤버, 이번 프로듀스 101의 투표 조작은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인 어린 청년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던 행동이었다.

앞으로 있을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노력과 관심을 비롯해 출연자들의 꿈을 짓밟지 않는 공정하고 깨끗한 프로그램이길 바라 본다.

社說

도의회 예산안 졸속 심사에 '끼워 넣기'까지

전남도의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뒷말이 많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임에도 '낭비성 사업'이라며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비를 절반가량 삭감했다가 되돌리려는가 하면, 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 사업으로 도의원들의 '끼워 넣기' 예산이 무려 30건 가까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전남도가 제출한 8조 1588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45억 9000여만 원(49건)을 삭감하는 대신, 45억 4800만 원(53건)을 증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취약 계층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합량 미달' 심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행부가 책정한 예산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애초보다 배 이상 늘어난 36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은 기존 안대로 유지됐다. 과도한 예산 증액에다 해당 상임위 의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애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결·통과됐지만 국비를 확보하고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개별 없는' 예산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집행부가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증액한 지역구 민원행기기성 '끼워 넣기' 예산도 27건이나 됐다.

전남도의의회는 오는 12일 제 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선거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이제 사라져야 할 잘못된 유물이다. 예산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간하게 심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 도로 해제' 시민 의견도 반영해야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공원의 경우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민간 공원 특례를 적용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과 달리 도로는 진행 상황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어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도로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지게 될 폭 20m, 4차선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는 모두 52곳이다. 이들 전체를 도로로 조성할 경우 최소 2조 원의 사업비가 들 어갈 것으로 추정돼 시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중 12개 도로를 해제시켜 줄 것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15개 도로의 경우 일몰제 시행 전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하거나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칠 예정이며 나머지 25개 도로는 일

몰제를 적용해 기존 도로 계획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 도시계획 도로들에 대한 개설·해제 기준이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 열리는 '풍암유동단지 회재유동길 도로 개설 주민 설명회'처럼 사전 공청회나 공람 등의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도로 계획이 결정된 이후 의견 수렴에 그치는 데다 참석자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도시계획 도로는 대개 인구 유입으로 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더욱이 도로 개설 여부에 따라 많은 물론 이동·물류 등 시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도로 일몰제' 적용으로 도로 시설에서 해제되면 공원과 마찬가지로 난개발도 우려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도로 개설과 해제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에 다시 때서운 겨울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7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연소 실험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ICBM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여기에 정찰기와 해상초계기 등을 연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하면서 북측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북한이 심리적 임계점을 깨는 도발에

비핵화 방식에서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과 일괄타결을 고집하는 미국 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쉽진 않지만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을 되찾아 내야 한다. 정치·외교적으로 당장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면 보다 과감한 경제적·인도적 차원의 접근책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꿈을 놓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봄'은 결코 멀지 않은 것이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한반도의 봄

기 고

나주 남평과 안성현



김철성
전남도 남평과적검문소 주무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의 통찰이다. 남평 역시 드물고 물이 있어 형성된 도시다. '택리지'의 지리편을 보면, 집터를 잡으려면 수구가 꼭 담긴 듯해야 하고 그 안에 들어 펼치진 곳을 눈여겨보아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물은 재물(財庫)을 담은 것이므로 큰 물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다고 말했다. 이 조건에 부합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남평이다. 남평의 평평한 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남평은 행정구역상 나주시에 속한 하나의 읍이다. 현재 남평이라는 지명에서는 이 지역을 휘감아 도는 드물강(행정적 명칭은 지석천) 물과 관련된 그 어떠한 상징도 떠올릴 수 없다.

그러나 '물의 고장' 남평의 역사를 조금만 들춰봐도 물과의 깊은 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나주시사'에 따르면, 남

평은 본래 백제 시대에는 미동부리현, 고려시대에는 남평과 영평을 함께 사용했다. 미동부리는 물이 차있는 들을 가진 마을이고, 영평은 물이 차있는 들이라 한다. 영평은 들판이 질척인다고 해서 '진들'이었는데 이것이 한자화하면서 영평(永平)이 됐다.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만들어진 남평이라는 지명은 광주를 기준으로 해 남쪽의 평평한 들이라는 뜻이니, 당시는 광주 관할이었기는 하지만 지금의 남평 입장에서선 꼭 반가운 지명만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남평의 생활 문화 속에 드물강의 물과 관련된 자취가 남아있다. 예컨대 남평 장날은 1일과 6일이다. 흔히 장날의 날짜는 오행 사상에 의해 정한다. 즉 그 지역의 산세가 구불구불한 물흐름 모양의 수체(水體)면 1·6일, 영암 월출산처럼 뾰족뾰족한 불꽃같은 화체(火體)면 2·7일, 삼각형 모양의 목체(木體)면 3·8일, 바가지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인 금체(金體)면 4·9일, 끝으로 산봉우리가 네모 모양으로 평평한 토체(土體)면 5·10일이다.

남평 장날이 1·6일이면 주변에 수체인 산모양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행여 강 건너 산줄기

를 수체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풍수학에서 산이 없으면 물길로 대신하는 '수세정혈법'이라는 것도 있다. 드물강이란 물길이 곧 수체여서 정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또 남평은 강물을 농업 용수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장마철 범람 때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도 많았다. 그래서 물 조심 하자는 비보 풍수가 활용됐다. 그 자취는 현재 남평초교 왼쪽편의 동사리 당산의 당산제 형태로 잔존한다. 250여 년을 이어온 동사리 당산제는 입석이 주신으로 흥수 방지 등의 풍수 비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는 남평 드물강과 관련해서 한 분을 떠올렸다. 널리 알려진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와 별교 부용산 입구에 세워진 노래비의 '부용산'에 곡을 붙인 월북 음악가 안성현(1920-2006)이다. 그는 남평에서 태어나 남평초교를 다녔다. 함흥으로 이사 가기 전인 16세까지 살면서 드물강을 놀이터 삼았던 것이다. 유년 정서는 평생을 간다고 했다. 드물강 유원지를 뛰놀았던 안성현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에서 고향의 강변을 떠올렸을 것이다. 김소월의 시는 여기 남평 드물강에서 안성현에 의해 새롭게 태어

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물(드물강)과 관련한 안성현의 집안 얘기를 해야겠다. 서두의 택리지에서 밝혔듯 물은 재물을 상징한다. 안성현이 대음악가로 성장하기까지는 집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했다. 게다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지 않았던가. 예나 지금이나 음악 공부는 비용이 만만찮다. '화첩기행' (김병중)을 보면, 남원이 일찍부터 소리 문화의 요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들과 물이 풍부해 먹고 살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농경 사회에서 배부르고 나면 풍류와 예를 찾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여기서 남원은 남평으로 바뀌듯 뜻은 통한다. 안성현의 부친인 안기옥도가 야금 산조의 명인 아닌가. 결국 드물강의 풍부한 수량이 살기 좋은 남평과 안성현이라는 천재 음악가를 낳은 셈이다.

남평에서 만난 안성현을 통해 떠올랐던 것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다. 현재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유호한 민간인 문화·예술 교류가 아닐까. 그래서 김소월의 강변과 안성현의 강변에서 우리는 함께 큰 울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